

## 2023.03.12.(주일) 마태복음21:1-11 주가 쓰시는 인생 김의환 목사님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장 복된 인생이 주님이 쓰시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만 하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너무 떨리네요. 휘문에서는 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떨립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초원에는 젊으신데 정말 뇌출혈로 쓰러져 죽었다가 부활하신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에 따라 우리 몸에서는 이런저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웃을 때는 엔돌핀이 나오고, 평안할 때는 세로토닌이 나오고, 사랑하면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하죠. 우리들교회는 최근에 웃음 부장님이 임명되어서 예배 때마다 하하하 웃으니 예배 때마다 엔돌핀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엔돌핀보다 4천 배나 강한 호르몬 다 이돌핀이 있다고 하죠. 몇 년 전 의학계에서 발견되어 정말 암 통증과 치료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다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감동할 때 나온다고 해서 감동의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새로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우리가 지옥 같은 환경에서 정말 해석이 안 되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대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서 정말 내 환경이 해석됨으로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 다이돌핀이 많이 나와서 건강해지시고 또 영혼구원을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가 쓰시는 인생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 1. 내게 허락하신 겸손한 환경에 잘 매여있어야 합니다.(1-3절)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루어 하심이라 일렀으되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21장부터 27장까지 성 고난주간의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33년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마태는 이 6일에 불과한 일을 7장에 걸쳐서 기록합니다.

1절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고 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에 위치한 해발 800m 정도 높이되는 산입니다. 한눈에 그 예루살렘이 다 보였을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벳바게는 [베트] 히브리어 ‘집’과 [파그] ‘무화과 푸른 열매’ 이렇게 두 단어로 된 합성어입니다. ‘덜 익은 무화과 동네’ 이런 뜻이에요.

19절에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꼬집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연결해 보면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또 덜 익은 무화과 같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감람산에서 슬퍼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질 십자가를 묵상이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신앙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한 주간 나의 죽음을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고 천국의 확신 가운데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세요.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로 가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에게 부탁하면 될 텐데 이름 모를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십니다. 저 같으면 말을 안 듣고 베다니로 갔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예배만 드리는 마리아를 시키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에게 나귀 한 마리 갖다 달라고 해서 그렇게 구해서 가져왔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 나귀는 내 나귀가 아니다. 다시 갖다 놓거라” 하면 베다니에 가서 다시 돌려주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야 하니 더 고생인 것이죠. ^^;;

2절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귀를 보리라 ...

그리하면 보리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고, 시간 낭비 같이 여겨질지 몰라도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주님은 준마를 끌고 오라고 하지 않고 - 좋은 말을 끌고 오라고 하지 않고- 왜 초라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공식 입성행사를 갖는 것은 왕이나 군대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할 때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지휘관은 준마나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전쟁에 사용했던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평화 시에 농사나, 짐수송에 사용되었던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제자와 무리들에게 “나는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할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드러짐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관점에서는 나귀 같은 어떤 인생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건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 퍽빠라 할지라도! 제가 사사기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삼손이 나귀의 새 퍽빠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나귀 퍽빠라고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수식어가 붙어요. 그냥 나귀가 아니라 ‘**매인 나귀**’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전까지는 겸손한 환경에 잘 매여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나의 매임을 풀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치면 그 매임이 더욱더 내 목을 조여와요. ★그래서 주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때까지 잘 기다려야 되요.

저는 참 매여있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9시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도망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학교를 친구와 빠져나와서 친구와 함께 프라이드 치킨을 시켜서 반반 나누어서 청소년 관람불가 비디오를 영화 감상실에서 봤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 또 군대 가서는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근데 배탈 나지 말라고 미지근한 물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탈해서 찬물을 찾아 헤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입시에 많은 실패를 했었는데 또 제가 4수하고 학교를 늦게 들어가니까 나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2학년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내가 그때 중국어과를 다녔는데 이번에 대만 아웃리치를 가니까 그때 만약 졸업했으면 내가 중국어로 설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서는 육아를 피하기 위해서 신대원 기숙사

에 갔습니다. 하루이를 더 집에 있다가 가도 되는데 뭐가 있다고 일찍 떠났어요. 그리고 졸업해서는 교회로 늘 도망갔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바쁘다고 해도 오늘 한가한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을 지나 가을 무렵 때 둘째가 (이제 올해 입학했는데) 내년 초등학교 입학할 생각에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육아의 매임에서 풀어지겠구나!’ 막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차 계약서를 찢었다는 큐티 나눔도 했었는데 다시 이제 좀 더 썬 차를 다시 계약하고 ‘이제 나는 내년부터 이 새 차를 타고 이제 육아에 매임에 자유해져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으로 심방을 다녀야지!’ 이렇게 막 기쁨에 차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원함>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정말 나의 원함이 아니었는데- 아내에게 카톡이 톱! 온 거예요. 셋째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각방을 쓰고, 거의 뭐 부터 있지 않는데 성령님이 성령의 잉태를 한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된다!!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정확하게 두 줄이었습시다. 아니 그래도 못 믿겠다. 다시 한 번 해봐라. 또 그렇게 나왔어요. 정말 감사보다도 다시 이거(육아)를 시작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큰 놀림이 있었습시다. 그래도 ‘나 애국가구나! 나라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었습시다. 그런데요! 아기 검사 결과가 점점 이제 안 좋은 거예요. 매인 정도가 아니라 제 막 숨통을 조여 온 것이었습시다. 그동안 제가 기형아 관련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찾아봤는지 모릅니다. ‘아니겠지... 아니겠지..’ 11월 6일 마지막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인데 큐티인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였어요. 혹시 딸이 아닐까? 더 불안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는 아이가 될 거라는 확신은 들었지만 웬지 제목에서부터 고난이 올 것 같은 거예요. 큐티 책을 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병원에 1시간마다 전화하니까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러다가 오후 5시에 통화가 되었습시다. 아마 4수한 수험생이 대학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선생님 결과가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네, 21번 염색체가 3개로 확인되었습시다.”

“아! 2개 아닌가요?”

“3개가 맞습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받았는데- 그때 감정이 고스란히 생각이 나요. 제 심령에 쓴물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구원을 위해서 더 뛰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더 살린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을 살리면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 이후로 기도가 되지 않았습시다. 담임 목사님께서 메일을 통해서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머리로는 너무 잘 알겠는데- 이것이 약재료가 될 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절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심방을 많이 잡는 편인데 그 후로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고 두려워서 심방을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더 많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심방전화, 영접전화... 그동안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이 그때 다 돌아가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역이니까 해야 되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4개월 동안 제가 많이 다녔는지.. 정말 은혜로 버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버티다가도 **사역을 다 마치고 골방에 있으면 ‘쉬운 결정을 하고 멀리 떠나버릴까?’** 그냥 내가 무슨... 내 주제 팔복이야? 그냥 기존 교회에 돌아가서 기복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역을 할까? 내가 무슨...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나?’ 수없이 자주 어둠의 생각이 밀려왔지만... 그러나 제가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가.. 사랑이.. 너무 크기에.. 너무 많기에.. 차마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장례를 마치고 집사님과 식사하는데 한 집사님이 ‘하나님, 사모님 뱃속에 들어가서 아기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다고 위로의 말을 해주시는데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이 계속 생각나 많이 울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때 설교해 주신 평.초원님들의 간증이 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나와 관계없는 고난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가슴에 와닿고 칠흑 같은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내시는데.... 피투성이라도 나도 살아야지....’ 하며 붙어만 갔더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보다 100배, 1000배 힘들었던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이 시간에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저를 쓰시기 위해서.. 그동안 잘 해석이 안됐는데 이 주일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쓰시기 위해 이런 겸손한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째 태아 소망이가 주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나귀 새끼인데 쓸 수 없다며 버리려 했던 제 죄가 생각나 회개가 되어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딸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인생으로 쓰신다는 말씀이 100% 옳고, 제가 100% 틀렸음을 고백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저서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6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애우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 장애를 가진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 집의 흑암에 빛을 비추려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 집안의 죄와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장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기막힌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할 방언이죠. 처음에는 저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의 죄와 저주와 기복을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절절 매시는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고민, 고민하면서 ‘어느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낼까?’ 하나님이 궁리하면서 저희 가정에 주신 그냥 선물이 아니라 ‘기막힌 선물’ ‘기가 막힌 선물’임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저희 딸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연약해서 또 나는 장애가 있어서 나는 하나

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야'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버리고 싶은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쓰시면 그 어떤 인생도 끝난 것이죠. 준마라 할지라도 지옥 가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고, 나귀 새끼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 주님께 쓰임받으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 ■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Q 성도로서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Q 여러분은 어떤 겸손한 환경에 계신가요?

Q 그 환경에 잘 매여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풀려고 해서 더 꽁꽁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Q 내가 버리고 싶은 남편, 아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나귀 새끼임이 인정되십니까?

두 번째 주가 쓰시는 인생이 되려면,

## 2.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4-5절)

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겸손한 왕으로 오시고, 구원을 위해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언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기서 '**겸손하여서**'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팔복산의 온유> 설교에서 [프라우스]를 뭐라고 하셨죠? 온유! 온유는 성품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나약함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힘이 있으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을 통제하고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힘이 있으나- 전능하시지만- 온유함으로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에요. 순종의 훈련이 굳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 적용이 필요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적용의 본을, 온유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왜입니까? 히브리서 5장 8~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 9.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제자 된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도록 성육신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육신을 어렵게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의 육화-말씀의 적용**입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 적용하시고, 구원의 근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적용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구원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29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받은 말씀이 저의 인생 전체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 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제 이름의 한자가 옳을 의(義), 빛날 환(煥)입니다. 제 이름의 의미가 고스란히 이 말씀에 담겨져있어요. 제가 깊은 열등감과 우울감에 시달릴 때, 제 인생의 뿌리가 흔들릴 때... ‘주님, 악한 저도 의로 불러주셨잖아요. 무너진 저를 세워 정말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샘 솟는 힘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붙드는 말씀이 있고, 또 올 한 해 붙드는 말씀이 있죠. 저뿐만 아니라 다 같이 붙드실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뭐죠? **이제는 안심하라** 이전에도 매년마다 이렇게 붙잡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전체를 붙드는 말씀, 또 한 해를 붙드는 말씀. 근데 사역하면서 매일매일 붙잡는 말씀은 없었어요. 심방이 있을 때, 설교가 있을 때는 말씀을 묵상했지만.. 매일매일 큐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들교회 와서야 비로소 매일매일 사역에 관계없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을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말씀 적용으로 일어나는 감사한 일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셋째 아기가 기형아 진단을 받고.. 또 며칠 후에 또 첫째 딸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한 친구와 시비가 붙어서 티격태격하는 일이 있었어요. 외상도 없고 별일이 아닌데 부모된 입장에서 정말 민감할 수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일이 커져서 학교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과도 하고 막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학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좀 이렇게 나눠서 천천히 오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요. 4개월의 시간이 참 지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간 재판정 같은 심의도 있었고, 또 여러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교육청의 화해 조정을 해주는 부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소송을 가지 않고 한 번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으니 한번 얼굴 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셔서 저희는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화해 조정하기 전에 각각 가정별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면담하



는 도중에 아내가 이제 어떤 관련 서류를 보내주기 위해서 서류를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조정에서 주시는 분이 “우리들교회 다니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마침 교회 봉투를 이제 가져왔어요. 다 찢어지고 널조각처럼 너덜너덜한데 이제 교회 이름과 로고 부분만 딱 안 찢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 순간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것을 딱 보시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큐티하는 교회고, 고속도로에서 자주 본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도 크리스찬이라고, 또 어느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 교수님이고 유명한 작가이신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라 제가 너무 잘 알기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조종하시는 분이 자신의 아들이 학폭으로 피해당한 경험이 있다며 그래서 이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다고 약재료를 나눠주셨어요. 우리들교회 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화해 조정으로 이렇게 협의가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해요. 그 순간 제 신분도 모르겠지만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정말 그날 말씀으로 “이 사건이 우리를 낮추셔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모든 일에 우연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이틀 지나서 또 화해 조정의 날이 다가왔어요. 큐티를 딱 펼치니까 놀랍게도 제목이 <천국의 용서>였습니다. 정말 세 번 용서가 최대인 저에게 7번을 70번 용서하라는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불가능한 명령이었지만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나오는 저에게 부어주신 만 달란트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백 데나리온 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능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도 우리가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주님께 받은 만 달란트! 그 은혜만을 생각하자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장소로 갔습니다.

저녁에 시작됐는데 무려 4, 5시간 동안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조정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고, 기록하는 선생님이 부목자님이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목원인 것이죠. 마치 화해 조정 목장 같았습니다. 중간에 여러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몇 년간 이제 목장을 경험한 구력이 있기 때문에.. 잘 듣는 훈련이 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잘 들어줄 수 있었고, 또 때에 따라 필요한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4개월 기간 동안 저 아내는 참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고, 왜 빨리 우리를 풀어주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많이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화해 조정 시간을 통해서 또한 귀한 크리스천 한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가 되지 않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경험을 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즘 학폭이 이슈인데 이제 관련 공부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너무



전문가가 됐어요. 또 이 부분에 또 성도님도 상담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총과 칼로 오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힘과 그 전능함을 스스로 통제하시면서 온유함으로 친히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순종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최소한의 겨자씨 만한 순종과 적용을 해야 합니다. ★★ 비록 나의 적용이 부족하고 미미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요. 주님은 거기에 기름 부으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임한 말씀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Q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도 순종하셨다는 말씀에 몇 % 도전을 받으십니까?

Q 내 인생 전체를 붙드는 말씀, 또 한 해 붙잡는 말씀, 매일매일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까?

Q 말씀을 이룬 적용 간증이 나에게 있습니까?

주가 쓰시는 인생이 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

### 3. 기복적인 열광을 넘어서는 분명한 신앙고백이 있어야 합니다.(6-11절)

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제자들과 무리의 대다수는 겹옷을 내어놓습니다. 겹옷은 당시 재산과 명예, 지위를 의미해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소중한 거-내가 붙드는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다는 것은 예수님을 승리와 기쁨의 왕으로 여기고 환영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6절 말씀을 인용하여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다’며 그렇게 찬송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열광할까요? 십자가를 지셔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알아봐서일까요? 아니죠. 다윗의 왕직을 가진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소망하기 때문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즉, 팔복이 아니라 기복의 열광이죠.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결국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죠. 그리고 열광하던 무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금세 분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식을까요?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 신앙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 11.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무리’는 신앙고백이 아니라 단순히 고향, 칭호, 이름 정보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런 신앙고백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기복적인 열광을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실패하고,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두 눈으로 경험하고 보고 나서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인생의 한계상황에 와서야...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C.S. 루이스는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시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듣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 속삭임이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20여년 훈련이 끝나도 자기 죄가 보이지 않은 야곱처럼.. 저도 사역한 지 10년이 넘었고, 또 우리들교회에 와서 모든 양육을 다 받고 5년차가 되었어도 여전히 내 죄를 못 보고 육적으로 잘 되고 싶은... 뿌리 깊은 기복이 정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번 고난을 통해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왔는데도.. 성령받기 전의 제자들처럼 회피하고, 무리처럼 정말 애통이 아닌 원통과 원망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제자답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붙어만 갔더니 <팔복산에 갑시다> 설교를 통해서 여전히 병 낫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사람의 위로만 바라는 저의 실상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안 되는 나 때문에 애통을 해야 하는구나. 정말 울어야 하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팔복을 들었지만 이번 설교를 들으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도-이런 부족한 죄인인 나도- 팔복산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외침에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다른 모양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계실 텐데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많은 겉옷과 헌신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고.. 무리처럼 분노하고, 또 제자들처럼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정말 고난 가운데 외치시고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함으로 “주님이 100% 옳으십니다! 주님이 참 선지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정말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Q 기복적인 메시아를 바라며 십자가를 회피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분노하는 무리 이십니까?

Q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분명한 신앙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Q 요즘 나의 신앙생활은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차갑습니까?

오늘 공동체 고백은 짧은 대만 선교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긴 아웃리치였죠. 제일 제가 고난이 많을 때 그 아웃리치를 4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 여정이 2월 18일로 끝났어요.

13명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6명이 되었어요. 제가 그 7이라는 숫자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한 분이 비자 때문에 안 될 때 얼마나 낙심했는지 근데 희한하게 대만은 7이 아니라 6이 또 좋은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날까지 아픈 팀원이 있었고, 또 하루 전날 한 분은 여권을 잃어버려서 멘붕이 왔었습니다. 위기가 많았어요. 그러나 겸손한 환경 가운데 끝까지 매여 있는 나귀 팀원들 때문에 정말 귀하게 쓰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겠지만 그 매듭이 대만 가서 풀렸어요. 청년도 부족하고 숫자도 적으니 멋드러지고 화려한 공연은 못했지만, 우리들교회만의 강점을 보여주자고 준비한 진솔한 간증과 큐티 설교, 또 큐티나눔, 또 중국어 사영리 전도, 또 어큐를 기반한 인형극.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 땅에도 통했고 “고난이 축복”구호가 정말 한 주간 내내 대만 땅을 울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간 지역교회는 37년된 아주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오픈하고 나눔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섬기며 큐티 설교하면서도 목사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교회 이름을 걸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약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신 집사님도 가감 없이 오픈하셨어요. 생각보다 정말 큰 은혜가 있었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춤추고 노래하는 어떤 공연보다 훨씬 의미가 있고, 감동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준비한 영상으로 나머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아웃리치 영상)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가 쓰시는 인생이 되려면 첫째로 내게 허락하신 겸손의 환경에 잘 매여있어야 돼요. 내 고난을 내가 끊으려고 하면 더 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때까지 잘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복적인 열광을 넘어서는 분명한 십자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알팍한 그런 기복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로 오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제목** 내게 주어진 겸손한 환경에서 잘 매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나의 가족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나귀 새끼임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최소한의 적용으로 말씀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복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고백으로 팔복산에 올라 사명감당하는 복된 인생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는! 쓰임받는 인생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뿌리 깊은 기복의 열광은 잠시고, 사건이 오면 무리처럼 분노하고 원통해 하는 것이 저의 수준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저 때문에 애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공동체에 매여있게 하셔서 말씀이 들리고 이 모든 고난이 내 평생 예수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되라고 저에게 주신 겸손한 환경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가정에 주신 아픈 생명을 주님이 쓰시는 나귀 새끼라고 가르쳐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서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바뀌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 인해, 또 끊어지지 않은 중독으로 인해 ... 해결되지 않는 부부 갈등으로 지쳐쓰러져 내 힘으로 스스로 끊어버리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주시고 “이제 내가 너를 쓰게 노라!!” 말씀해 주셔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팔복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에 붙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복산에서 내려와 팔복산에 오르므로 가난한 환경 가운데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보임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미주 집회 중이신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교회를 필두로 주변에 정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진행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기쁨 부어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반기 시작되는 모든 양육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와 목장에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진영 논리에 나라가 어수선 합니다.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

는 ...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룩하게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인구 절벽으로 가지 않게 하시며, 태아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지진으로 절망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복구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요약]23.3.12. 마태복음21:1-11 주가 쓰시는 인생 김의환 목사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서 정말 내 환경이 해석됨으로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감동 호르몬인 다이돌핀이 많이 나와서 건강해지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가 쓰시는 인생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주가 쓰시는 인생〉이 되려면,**

#### **1. 내게 허락하신 겸손한 환경에 잘 매여있어야 합니다.(1-3절)**

Q 성도로서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Q 여러분은 어떤 겸손한 환경에 계신가요?

Q 그 환경에 잘 매여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풀려고 해서 더 꽂꽂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Q 내가 버리고 싶은 남편, 아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나귀 새끼임이 인정되십니까?

#### **2.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4-5절)**

Q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도 순종하셨다는 말씀에 몇 % 도전을 받으십니까?

Q 내 인생 전체를 붙드는 말씀, 또 한 해 붙잡는 말씀, 매일매일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까?

Q 말씀을 이룬 적용 간증이 나에게 있습니까?

#### **3. 기복적인 열광을 넘어서는 분명한 신앙고백이 있어야 합니다.(6-11절)**

Q 기복적인 메시아를 바라며 십자가를 회피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분노하는 무리이십니까?

Q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분명한 신앙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Q 요즘 나의 신앙생활은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차갑습니까?